

2018년 6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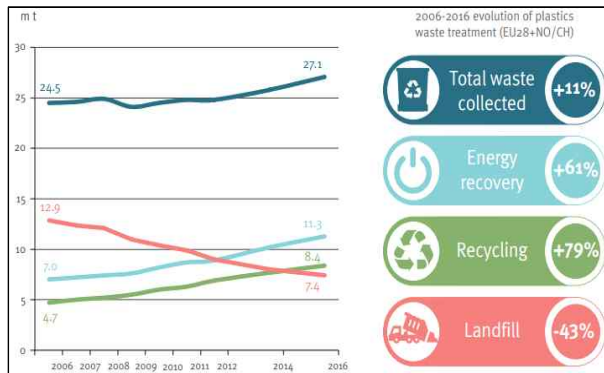
emerics@kiep.go.kr

## EU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입법: 주요 내용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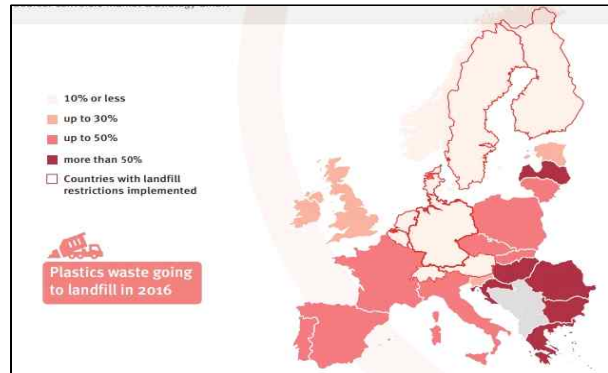
- 2018년 5월 28일 EU 집행위원회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을 제안<sup>1</sup>
  - EU 집행위는 해양오염의 약 70%를 차지하는 폐플라스틱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함.<sup>2</sup>
    - 2016년 기준 폐플라스틱 중 31.1%만 재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27.3%는 매립, 41.6%는 소각[그림 1, 2 참고].

그림 1. 폐플라스틱 처리 (백만 톤, %)



주: EU28개국 및 노르웨이, 스웨덴 포함  
자료: PlasticEurope(2017).

그림 2. 폐플라스틱 매립률 (%)



자료: PlasticEurope(2017).

- 환경오염에 대한 위기감과 함께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규제조치에 따라 각국은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대응에 나서고 있음.
  - 중국은 2018년 1월부터 폐비닐을 포함한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향후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을 폐선박, 폐차, 폐PET음료병 등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결정

1) European Commission. 2018.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reduction of the impact of certain plastic products on the environment.  
2) UN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규모는 130억 달러로 추산(UNEP 2014).

- 이번 EU 규제안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출시 금지, 사용량 감축, 생산자책임 확대(EPR)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시장출시 금지) 플라스틱 면봉, 식기류(포크, 나이프, 숟가락, 접시, 빨대), 풍선막대는 2022년 이후 사용이 금지
  - (생산자책임 확대) 식품용기, 음료용기, 풍선, 포장지, 담배필터, 플라스틱 봉투, 물티슈, 낚시도구 등의 생산자는 쓰레기 폐기와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 생산자가 플라스틱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개발한 경우에 인센티브 제공
  - (라벨표시) 위생용품과 풍선의 경우 플라스틱 사용여부, 적절한 제품의 처리방법,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라벨로 표시하도록 함.

표 1. 항목별 규제내용

	사용량감축	시장출시 금지	라벨표시	생산자책임 확대	인식제고 조치
식품 용기	√			√	√
음료용 컵	√			√	√
플라스틱 재질의 면봉		√			
식기류(포크·나이프·숟가락·접시·빨대)		√			
풍선막대		√			
풍선			√	√	√
포장지				√	√
음료용기 및 뚜껑				√	√
담배필터				√	√
위생용품	물티슈		√	√	√
	생리대		√		√
플라스틱 봉투				√	√
낚시 도구				√	√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분리수거)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용기에 대한 분리수거를 통해 회원국들은 2025년까지 해당 제품의 90%를 수거함.
  - (인식제고 조치) 폐플라스틱의 처리와 관련한 모범사례를 홍보하고 부적절한 폐플라스틱 처리가 초래하는 환경오염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경각심 제고
  - 규제안은 2030년까지 2,230억 유로의 환경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EU의 이번 규제안은 회원국별로 상이한 플라스틱 제품 사용제한에 관한 EU차원의 공동대응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음.
- EU 회원국 중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 등에서 폐플라스틱에 대한 자국 내 규제를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회원국별로 규제내용이 조금씩 상이함.
    - 폐플라스틱 매립 금지(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룩셈부르크, 벨기에, 핀란드), 플라스틱 봉투 부담금 부과(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등) 등이 회원국별로 도입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제한은 EU의 순환경제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18. 5월 22일 최종 승인) 및 플라스틱 대응전략(Plastic Strategy, '18년 1월 제안)의 일환임.<sup>3</sup>

- 한국 정부도 생산부터 재활용에 이르는 각 순환단계에서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인다는 계획('18.5월)을 통해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2020년까지 유색플라스틱 음료용기를 무색으로 전환하고,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수를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확대함으로써 재활용률을 제고할 계획임.
- 환경부의 폐플라스틱 수출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약 1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00% 증가한 반면, 수출량은 65%로 급감 **EMERiCs**

(작성: 오탉현 전문연구원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구미팀)

3) European Commission. 2018. Circular Economy Package: Four Legislatives on waste.